파워포인트도 몇 초만에 뚝딱…AI와 인간 협업시대 본격화

1. 기사 본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각자의 업무 도구에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 등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에서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제공한다. 구글도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을 추가해 메일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글쓰기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AI 기술의 적용으로 인간과 AI가 상호보완적으로 협업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각각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생산성 증대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 키워드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가리키며 제너레이티브(generative) AI라고 이른다. 생성형 AI 기술에는 기계학습 모델 가운데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이 사용되며, 대표적인 생성 모델로는 오토인코더(autoencoder)와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 있다.

-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은 자율 학습에 사용되는 일종의 딥 러닝 모델입니다. GAN의 첫 번째 신경망은 생성기라고 합니다. 랜덤 노이즈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입력 데이터와 유사한 새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신경망은 판별자라고 합니다. 생성된 데이터와 입력 데이터를 가져와서 둘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판별자는 출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생성기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생성기의 목표는 판별자를 속일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판별기의 목표는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를 올바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네트워크는 적대적 훈련이라는 과정에서 함께 훈련되는데, 여기서 생성자는 판별자를 속이기 위해 출력을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판별자는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를 구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URL - https://www.etnews.com/20230317000135